

광주은행 양궁 김민서 팀 창단 첫 '금 명중'

대통령기 우승...순천시청 이은경·광주여대 이수연 은메달 광주체고 조수혜·최우진 동메달 등 광주·전남 공사들 선전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김민서가 팀 창단 첫 금메달을 따냈다.

김민서는 지난 11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41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양궁대회 여자일반부 릴리피케이션 70m 경기에서 345점을 쏘 박소민(LH)과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32번째 국내 실업 양궁팀이자 최초의 은행팀으로 출범한 텐텐양궁단의 첫 금메달이다.

김민서는 12일 열린 50m에서는 동메달을 추가했다.

342점을 기록한 김민서는 박진영(전북도청)·이은경(순천시청 이상·345점)에 이어 전훈영(인천시청), 김재운(현대모비스)과 공동 3위에 올랐다.

여자대학부에서는 올해 광주여대에 입학한 이수연이 60m에서 339점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신고했다.

이수연은 좋은 신체조건과 타고난 집중력으로 차세대 한국 여자양궁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

체고 재학 중 국가대표 후보로 각종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여자고등부에서는 지난달 열린 2023 아시아양궁연맹 아시안컵 3차 대회 단체전 금메달과 화랑기 전국시도대항 양궁대회에서 개인전과 혼성단체전 2관왕에 오른 조수혜(광주체고 3)가 30m에서 355점을 쏘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고등부에서는 최우진(광주체고 2)이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최우진은 12일 열린 50m에서 339점을 기록하며, 박은성(대전체고 1·344점), 김종환(경북고 3·340점)에 이어 지호준(서울체고 1·339점)과 공동 3위에 자리했다.

최우진은 전남 열린 70m에서도 336점의 기록으로 김무준(서울체고 2·344점), 장준하(부산체고 3·342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한편, 1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개인전(64강-4강), 혼성단체전(16강-4강) 경기가 진행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은행 김민서



광주여대 이수연

스비틀리나 “전쟁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우크라이나 출신 ‘엄마 선수’ 시비옹테크 꺾고 워블던 4강 진출

“전쟁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전란에 휩싸인 우크라이나의 엘리나 스비틀리나는 11일(현지시간) 워블던 여자 단식 8강전에서 ‘우승 후보 1순위’ 이가 시비옹테크(폴란드)를 꺾은 뒤 이렇게 말했다.

스비틀리나는 이날 시비옹테크와 2시간 51분 동안 접전을 펼친 끝에 2-1(7-5 6-7(5-7) 6-2)로 승리하고 4년 만에 워블던 준결승에 올랐다.

최근 4년 동안 4차례(프랑스오픈 3회·US오픈 1회)나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며 현역 선수 중 가장 돋보이는 성적을 내는 시비옹테크의 우세가 점쳐졌던 경기다.

그러나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스비틀리나는 단단하고 거침없는 플레이로 시비옹테크를 압박해 승리를 거머쥐었다.

경기 뒤 기자회견에 나선 스비틀리나는 조국이 전쟁의 참화에 빠진 점이 승리를 향한 커다란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비틀리나는 “정신적으로 더 강해졌다. 어려운 상황을 더는 재앙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인생에는 더 나쁜 일도 있다. 더 침착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경기를 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부풀리는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을 위해 더 힘을 낸다고도 말했다.

스비틀리나는 “어린이들이 휴대전화로 경기를 보는 장면을 담은 영상들을 인터넷에서 많이 봤다.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녹아내린다”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작은 행복을 선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스비틀리나의 이번 4강 진출은 그가 출산에서 복귀하고서 3달 만에 이룬 성과여서 더 놀랍다.

스비틀리나는 남자 테니스 선수인 가엘 몽피스(프랑스)와 결혼해 지난해 10월 딸을 출산한 ‘2년 차 엄마’다.

올해 4월에야 코트로 복귀했는데, 지난달 끝난 프랑스오픈에서 8강에 오르더니 이번에는 세계 1위를 물리치고 준결승까지 내달렸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의 엘리나 스비틀리나가 11일(현지시간) 워블던 테니스 여자단식 8강전에서 우승 후보 1순위인 폴란드의 이가 시비옹테크를 상대로 공격을 성공시킨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3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 훈합복식 채유정, 남자복식 서승재, 김학균 감독, 대표팀 여자복식 백하나·이소희. /연합뉴스

“아시안게임 금빛 스매싱 도약 발판으로”

배드민턴 대표팀, 18일 개막 여수 코리아오픈 출사표

안세영, 톱 랭커 공략법 준비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이 다음 주 열리는 코리아오픈 선수권대회를 발판 삼아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빛 스매싱’을 하는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대표팀은 오는 18일부터 22일간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500 코리아오픈에 출전한다.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1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전에 국민들께 평가받는 대회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학균 대표팀 감독은 “이번 대회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준비하는 단계 중 하나”라며 “선수들이 앞으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도약할 수 있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표팀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7개 세부 종목에서 모두 메달을 따내며 2018년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 게임의 ‘노메달’ 수모를 씻어내겠다는 각오다.

김 감독은 최근 국가대표 출신 손안호, 김기정 등 베테랑들을 초청해 특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선수들이 아직 자신의 최고 능력치

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선수들의 기량을 올리기 위해 특별 훈련을 도입했고, 성과가 나온다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팀 간판인 안세영의 경우 톱 랭커들을 상대로 한 맞춤형 공략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코리아오픈 우승자인 안세영(세계랭킹 2위)은 올해 대회에서 1위 아마구치 아카네(일본), 3위 타이즈잉(대만), 4위 천위페이(중국) 등과 정면승부를 벌인다.

김 감독은 “경쟁 상대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게임별로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전까지는 한 가지 플레이밖에 못 했던 것을 안세영 선수 본인도 깨달았다. 지금 바꾸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여자 복식에서는 세계 2위 이소희·백하나, 3위 김소영·공희용, 7위 김혜정·정나은이 출출돌한다. 남자 복식에선 세계 9위 최솔규·김원호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훈합복식은 세계 4위 서승재·채유정, 6위 김원호·정나은이 메달 경쟁을 벌이고 남자 단식에선 전혁진이 출전한다. 대표팀은 3년 만에 열렸던 작년 대회에서는 여자 단식(안세영), 여자복식(정나은·김혜정), 남자복식(강민혁·서승재) 등 3개 종목에서 우승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2관	엘리멘탈
3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4관	엘리멘탈, 흥, 댕구, 극장판 피노키오 위대한 모험
5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파이어하트
6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극장판 아름다운 그: 이터널, 슬기로운 아내 수업
9관	여름날 우리,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7관	새벽카를
8관	새벽카를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4회 정기연주회
평화를 향한 역동과 진혼

일시 : 2023-07-25(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403

기획공연 포커스 장하은 콘서트 'Once Again'

일시 : 2023-07-18(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즐거움
문화산책